

광주·전남서도 태극전사 힘찬 응원전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가 이뤄진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브라질 월드컵 응원전이 펼쳐진다. 광주시 등 지방자치단체 별로 축구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단체 응원전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 참사 애도 분위기와 출근 시간대와 맞물린 경기 시각 등으로 길거리 응원전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양제철고, TV보며 선배 태극전사들 응원=“대~한민국 짜짜짜 짜 짜”, “오~ 필승 코리아”... 18일 오전 8시 ‘축구 명문’ 광양제철고(교장 김성정)에 태극전사 선배들을 응원하는 응원가가 울려 퍼졌다.

광양제철고는 ‘축구의 지배자’ 윤석영(24·퀀스파크 레인저스)과 ‘한국인 최연소 프리미어리그’ 지동원(23·아우쿠스부르크)을 배출한 축구 명가다. 이 학교 재학생들은 러시아전이 치러지는 18일 오전 9시까지 TV를 시청하며 선배 태극전사들을 응원한다.

강신복 교감은 “따로 응원 이벤트는 마련하지 않지만, 태극전사 윤석영·지동원을 배출한 축구 명가로서 전교생이 TV를 보며 선배들의 결전을 응원할 예정”이라

18·27일 월드컵축구경기장, 23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광양제철고 재학생 TV앞에 모여 선배 윤석영·지동원 응원

대부분 기업체선 생산물량 맞추기 위해 정상 근무 관람 미뤄

고 말했다.

◇광주·여수에서 단체 응원전=광주시는 러시아전이 열리는 18일 오전 7시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응원전을 벌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23일 새벽 4시 알제리전은 KIA타이거즈 홈구장인 광주-KIA 챔피언스필드에서, 27일 새벽 5시 벨기에전은 월드컵경기장에서 응원전이 펼쳐진다.

시는 당초 월드컵경기장의 대형 전광판의 화질이 좋지 않아 고해상도 전광판이 마련된 챔피언스필드에서 응원전을 펼치기로 했다.

그러나 18일과 27일에는 KIA타이거즈 홈경기장 진행될 예정이어서 KIA 측에서 경기 준비를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시는 KIA 측의 양해를 얻어 경기가 없는 23일에는 챔피언스필드에서 응원전을 펼치기

로 했다.

여수시도 18일 여수진남체육관에서 시민들이 함께 러시아전과의 경기를 지켜보며 단체 응원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CJ CGV 광주터미널점도 208석 규모의 1개 상영관에서 첫 경기 러시아전을 생중계 한다. 현재까지 20여명이 단체 응원을 예약한 상태로, 경기일이 다가올수록 예약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예매권은 1매당 1만원으로 ‘꿈보 2천원 할인권’도 함께 증정한다. 이어 23일 오전 4시 알제리전, 27일 오전 5시 벨기에전까지 모두 1개 상영관에서 생중계 한다.

◇기업들 근무시간 따라 회비=이른 아침 대회가 열리는 탓에 광주지역 대기업 사업장 직원들은 안타깝게도 이날 TV 시청이 힘든 처지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경우 주간 1조

의 근무시간은 오전 7시로, 이날 근로자들은 재방송을 통해 한국과 러시아의 경기를 관람해야 한다. 주간 2조의 경우 당일 새벽 1시40분에 업무를 종료하고, 오후 3시40에 맞교대인 덕분에 온 좋게 집에서 TV로 경기를 볼 수 있어 1조와 회비가 엇갈리고 있다.

24시간 가동체제로 공장이 운영되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직원들 또한 단체관람이나 응원이 어렵다. 공장 특성상 가동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에어컨과 제습기 생산에 전력을 다 하고 있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직원들 역시 월드컵 경기를 본방으로 시청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일부 라인에 한해 단체응원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생산물량을 맞추기 위해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과 평동산단 등의 기아차 및 삼성전자의 협력업체 직원들도 대부분 출근시간을 맞추기 때문에 사실상 경기 관람은 미뤄야 할 처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8 해질 19:49 | 맑음 23:06 | 맑음 09:41

‘출근길 안개 주의’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남해안 일부 지역에 비 오는 곳 있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흐림 20/25 보성: 흐림 18/23
목포: 흐림 19/23 순천: 흐림 21/24
여수: 흐림 20/23 영광: 흐림 18/25
나주: 흐림 18/25 진도: 흐림 18/23
완도: 흐림 19/22 전주: 흐림 20/27
구례: 흐림 19/26 군산: 흐림 18/26
강진: 흐림 19/23 남원: 흐림 19/25
해남: 흐림 19/23 옥산도: 흐림 18/22
장성: 흐림 18/25

◇바다 날씨
오전: 풍향 북동~동, 파고 0.5, 풍속 북동~동 0.5~1.0
오후: 풍향 북동~동, 파고 0.5~1.0, 풍속 북동~동 0.5~1.5

◇생활지수
식중독: 65, 운동: 40, 빨래: 60

◇주간 날씨
18(수): 19/30, 19(목): 19/30, 20(금): 19/29, 21(토): 21/27, 22(일): 21/28, 23(월): 21/28, 24(화): 20/27

경찰 “한국축구 응원도 좋지만 운전 중 DMB 시청 안돼요”

직장인 출근 시간대 겹쳐
교통사고 급증할까 긴장

경찰이 축구국가대표팀과 러시아간 경기가 치러지는 18일 교통사고가 급증하지 않을까 내심 긴장하고 있다.

“2014 브라질 월드컵”의 한국과 러시아간 경기가 치러지는 시각은 18일 오전 7시.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쳐 있다.

상당수 직장인들은 경기를 지켜보다가 부랴부랴 출근길에 나설 수 밖에 없는 형편으로, 휴대전화 동영상·차량에 부착된

DMB로 이동 중에 경기를 관람할 차량 운전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평소에도 출근시간대 꼬리를 잇는 차량 정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출근 시간대 DMB로 월드컵 경기 시청 중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교통 체증은 볼 보듯 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 중 DMB 시청을 처벌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2월 14일부터 시행됐음에도, 움직이는 차 안에서 DMB를 보는 운전자를 적발할 ‘모수’가 없어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는 점도 경찰의 고민 거리다.

경찰은 이 때문에 첫 경기가 치러지는 18일의 경우 시민들에게 운전 중 DMB 시청을 자제토록 당부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운전 중 DMB 등 영상기기를 조작하다 적발될 경우 승합차는 벌금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운전 중 DMB 시청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운전 중 DMB 시청을 처벌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현재까지 적발된 차량은 없다. / 김지을기자 dok2000@



“포돌이에게 고민 적어 주세요”

16일 광주 북구 경신중학교에서 학교전담 경찰관들이 직접 학생들의 학교 폭력 피해 등을 접수받는 ‘고민 적어 주우리’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 학교전담 경찰관들은 기존에 학교에 비치된 학교 폭력 신고함을 학교전담 경찰관이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청소년들의 고민을 수렴하는 ‘찾아다니는 고민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 배팅사이트 축구팬 15% “한국, 러시아에 이긴다”

무승부 21%~64%는 “진다”

월드컵팬들은 한국 첫 경기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

직장인 최희승(27·광주시 서구 쌍촌동) 씨는 브라질 월드컵을 보면서 인터넷 배팅 사이트에 들어가 한국 경기 승패 내기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때는 친구들과 경기를 보며 ‘차맥(치킨·맥주)’ 내기를

하곤 했지만 이번에는 경기가 이른 새벽이나 출근시간대에 있어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열혈 축구팬인 최씨는 체육진흥투표권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인 배트맨(www.betman.co.kr)에서 한국 승리에 한표를 던질 계획이다.

배트맨 투표현황에 따르면 대다수의 축구팬들은 러시아 승리에 표를 던졌다. 지난 13일까지 5일간 진행된 축구토토 20회차 459만5502표(중복투표 포함) 중 한국

승리는 69만888표로 전체의 15%를 차지했다. 러시아 승은 64%, 무승부는 21%였다. 20회차에는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열리는 월드컵 14경기에 대해 일괄투표가 진행됐으며 1등 적중예상금은 20억4922만원에 이른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18일 한국경기 승패예측 댓글달기 이벤트를 17일까지 진행한다. 16일 현재 241명이 ‘좋아요’를 누르고 한국의 승·무·패를 예측하는 591개의 댓글이 달렸다. /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는 집

신속하고 간단한 뽀칠시공으로 **뿌려만주면 3~4°C** 실제 내부 온도가 차이가 난다면?

✓ **이지골드코트**는 복사열로 인한 건축물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뽀칠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의 **복사열을 방지**합니다.
이제 후끈후끈한 열대야에서 해방되십시오.

적용범위: 신축 건물 및 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외벽, 옥상, 지붕 등
슬라브 구조 주택 옥상 / 슬레이트 지붕 / 아스팔트 영글 / 주택의 외벽 / 샌드위치 패널 벽체 및 지붕 기와지붕 / 계랑기와 지붕 / 아치판넬 구조 지붕 / 축사(우사, 돈사, 계사 등) 지붕 / 사료탱크 등

EG GOLD COAT 이지골드코트 | 대리점문의 본사: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607-19 T. 010-7514-3266 / T. 041-634-9909

(주)홍성이엔지 | 호남영업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1 T. 010-2028-5900 / T. 062-513-1400
대리점: 광주남구 T. 010-5679-8100 / 광주서구 T. 010-5609-3500 / 광주광산구 T. 010-3641-9680
광주북구 T. 010-9431-3445 / 전남순천 T. 010-3633-3663 / 전남여천 T. 010-2788-0392

예향 고속관광과 함께 떠나요!

www.yh-bus.com

회사 출·퇴근 버스임대 - 여행지 사전예약
단체여행 버스대절 - 최신버스 저렴한 가격
최상의 서비스 및 예약자 선물증정

대향 예향고속관광 YEHYANG TOUR | 고객센터 및 예약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805(축석사거리) TEL.062.944.5775 FAX.062.944.5995